

한화, 대우조선 인수 물 건너가나?

산업은행, 자금조달계획 제출 요구 ... 한화 보유자산 매입지원 검토

산업은행은 “대우조선 매각과 관련해 매도인의 권리 행사를 2009년 1월말까지 1개월 간 유보한다”고 밝혔다.

산업은행은 12월28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의 대우조선 매각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.

산업은행 관계자는 한화에게 “인수의지의 진정성을 보이고 자체 자금조달에 최선을 다해달라”며 보유 자산 매각 등 실현 가능한 자체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.

또 “한화컨소시엄의 자체 자금조달 노력이 선행돼야 하지만 거래 종결을 위해 산업은행은 수용 가능한 가격 및 조건으로 한화그룹의 보유 자산을 매입해 한화컨소시엄의 자체 자금조달에 협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”고 밝혔다.

아울러 “한화가 자금조달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2009년 1월 말 이전이라도 언제든지 매도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”며 “인수대금 납입은 예정대로 3월30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”고 설명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8/12/29>